

유인촌 장관 자승 스님에 사과

‘호텔 같은 템플스테이’를 더이상 못지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불의를 빚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사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별 것 아닌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에게 “템플스테이 관련한 발언을 나를 직접 만나 확인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예방이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후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유인촌 장관이 총무원장스님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 “(국민일보) 기사를 앞 뒤를 자르고 보도돼 그런 오해가 발생했고, 전체적인 발언요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22일 조계종은 유인촌 장관 발언에 대한 항의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6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한 자리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늘 문광부에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유인촌 장관의 발언을 반문교사로 삼아 템플스테이 뿐 아니라 종단 내 불사에 대한 자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 해결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승가복지 제도화 위한 토론회

승려노후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승려노후복지 제도는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수혜대상은 65세 이상의 수행자로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총무부장 영담)는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승가복지의 시행주체·수혜대상·수혜영역·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중앙총회의원 선문·정법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성산·강설 스님, 논산 법계사 주지 지건 스님, 전국비구니회 지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적으로 승가사회는 수행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고, 수행공동체는 입산에서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했다”며 승가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부가 발표한 ‘승가복지제도 마련 및 시행(안)’에 따르면 승가복지제도는 재정승려 중 세남 65세 이상자 1703명(비구 680명, 비구니 862명, 사미 79명, 사미니 82명)을 대상으로 주거, 의료, 소득에 관한 복지가 제공된다.

주거 보장은 교구본사에 위치한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노인요양원 활용 및 노스님전용 처소를 신축해 제공한다. 이에 따른 건립비는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는 중앙에서 지원 또는 운영사찰에 대한 분담금 감면혜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 보장은 65세 이상 노스님 외에 무소인·무소득 승려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치료지원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찰 주지나 소임자의 경우 해당 사찰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소득이 없는 스님은 중앙 1/3, 교구 1/3, 본인 1/3(월 3만원 이내)씩 부담해 납부한다. 치료지원은 소임자는 당해 사찰, 무소득 승려는 종단에서 승려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종합건강진단서비스 등은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고 기타 의료비에는 종단 승려복지기금을 조성·활용하기로 했다.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종도들의 가입을 독려해 수급토록 하고 부족분은 개인연금 가입 또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를 조성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0만원 또는 60만원선. 국민연금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같고, 개인연금비용은 소임자는 당해사찰, 무소득 승려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에서 납부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재정확보방안으로 △승려복지

사업기금특별회계의 승려복지예산 △종단 일반회계 및 교구예산의 10% 출연 △월 3만원 이내 개인부담 △목적별부담금 및 출연금 △관련사업과 기금운영 수익금 △특별납부금 등을 내놓았다.

또, 승려복지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무원장을 이사장으로 한 ‘조계종 승려공제회’를 법인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교구는 교구본사 재무국이 별도 회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승려노후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데는 일치를 보이고 총무원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선·율·초기불전·한문불전 맞춤형 전문가 양성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동안 네 차례의 세미나를 열고 선·율학·초기불전·한문불전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대학원은 조계종 기본교육을 마친 3500여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원 및 교과목 등은 안일 뿐 정해진 바 없다. 특히 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사찰은 아직까지 예정지도 거론되고 있지 않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각 세미나마다 “교육원안을 바탕으로 11월까지 종도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전문대학원 설립안 내용.

#선 전문대학원
선 전문대학원은 선을 전문으로 교수·학습해 선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제는 1년 모집생을 10명(총정원 20명)으로 한 2년 과정이며, 4학기 동안 10개 과목(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영역은 △선사상(선의 수증론 연구, 선의 심성론 연구 등) △선의 역사(전등사사 강독, 한국선 사상사 연구 등) △선전(선어록 강독, 간화선 선전 강독 등) △선수행(남방선의 이론과 실천, 간화선 실참 등) △선문화·응용(선과 현대문화 연구, 선과 심리치료 연구) 등이다.

#율학 전문대학원
율학 전문대학원은 계율과 관련한 교과목을 교수·학습해 율사 및 율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관이다. 학제는 1년 모집생을

10명(총정원 20명)으로 한 2년 과정이며, 4학기 동안 8개 과목(3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영역은 △초기불교윤리의 연구1·2 △대승불교윤리의 연구 △현대적관점의 불교윤리 연구와 전문 2년 과정 후 불교윤리 개별연구(논문 작성기간)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기불전 전문대학원
초기불전 전문대학원은 불교의 뿌리인 초기불교의 정확한 이해 및 실천을 위해 설립될 기관이다. 학제는 2년 4학기 수업으로 안거 중 12주와 산철 기간 6주간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논강형식으로 진행되며 2년간 1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목은 △초기불교 술어의 이해 △<칭정도론> △아비담바 길라잡이 △범어 문법 △범어 원전강독 △인도불교사 △니까야와 아함 등이다.

#한문불전 전문대학원
한문불전 전문대학원은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인 한문 불전과 문헌을 연구·학습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학제는 1년 모집생을 10명(총정원 30명)으로 한 3년 과정이며, 6학기 동안 14개 과목(4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목은 △1학년에서 치문, 한문문법, 치문, 사집1을, △2학년에서 사집2·3·4, <금강경> <능엄경> <유마경>을, △3학년에서 <대승기신론> <원각경> <법화경> <화엄경>을 배운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파라밀요양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2일 안성 파라밀요양원(원장 각현·연꽃마을 이사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스님은 각현 스님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며, 입원요양중인 노인 및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사진=조계종 총무원 제공

안상수,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에 유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최고위원 출마 자리에서 봉은사 외압설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안상수 의원은 6월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봉은사 관련, 명진 스님과 김영국 씨가 한 발언 내용은 작년 11월의 일이라 오래돼 기억하긴 어렵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불교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같은 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안 의원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이것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명진 스님 측은 안상수 의원이 2009년 11월 1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명진 스님을 두고 강남 부자 절의 좌파 주지 운운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봉은사 직영전환에 외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안상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봉은사 측은 “안상수 의원 발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원담 스님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상수 의원 발언과 관련한 종단 입장은 없다. 안 의원이 종단과 협의해 발언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재가 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안상수 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이) 사실이면 깨끗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다. ‘유감’에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최소한 당대표에 출마할 마음을 먹지도, 또한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불교계를 다시 혼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굿관 벌인 스님에 ‘멸빈’ 판결

조계종 초심회계원(원장 정념)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2차 심판부를 열고 장애인을 치료하겠다고 사찰에서 굿관을 벌인 명안 스님에게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

회계원은 “명안 스님이 미등록 사설사암인 대전 지장사 주지를 지내며 장애인 치료를 명목으로 2억 여

원의 돈을 받고, 무속인과 굿판까지 벌였다”며 ‘승려법’ 제46조 1항의 ‘불조에 대한 불경’ 죄를 적용해 멸빈을 판결했다.

회계원 심판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할까지 강요해 금품을 받아낸데다가 출가수행자가 무속행위를 벌인 것은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